

부천 고강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99세

어머니의 손톱

이학환 지음



맑은샘

## 제1장 사모곡(思母曲)

제1곡 1924년 생 나의 어머니	8
제2곡 이별은 그리움을 부르고	10
제3곡 어머니의 늙은 손발톱	12
제4곡 보리밥 가운데 쌀밥	14
제5곡 어머니를 살린 아들	16
제6곡 어머니의 개인 간호사	18
제7곡 처방보다 좋은 약	20
제8곡 코로나 정국이 가져온 비극	22
제9곡 ‘아름다운 과정’	28
제10곡 감나무 아래에서	31
제11곡 아버지를 추억하며	34
제12곡 아버지의 지게	36
제13곡 어머니의 마지막 거처	39
제14곡 막냇동생	42

## 제2장 살아온 이야기

01 ‘부여’가 고향이 된 경위	48
02 서울 생활을 시작하다	51
03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	53
1) 우연한 만남	53
2) 소중한 이웃	55
3) 그 후의 아쉬움	57
04 ‘S사’에 입사하다	58
1) 열악한 작업 환경	58
2) 만족과 보람을 느낀 활동	63
3) 협상과 대화를 통한 변화	66
4) 명예로운 퇴사	69
05 아내와 아이들에게	72
06 두 번의 실패	75
07 그 후의 성공	78
08 원종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	82
1) 시장 활성화 사업	82
2) 시장 경영을 현대화하다	86

09 <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	90
1) 조합과의 인연	90
2) 콩 가공 시장의 전망	92
3) 함께 하니 비용\, 효율\,↗	96
10 어느 학생을 도운 이야기	98
11 비전(vision)-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99

### 제3장 지역의 일꾼으로서

01 정치에 입문하다	115
1) 안병도 위원장님과의 만남	115
2) “정치꾼은 가라, 시의원은 일꾼에게”	118
02 고강동 비애(悲哀)	123
1) 경인고속도로가 갈라놓은 동네	123
2)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147
3)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154
4) 해결책 제안	179
03 초선(初選) 활동에 대한 소회	196

04 광역동(廣域洞) 유감	200
1) 편도 2시간 5분	200
2) “광역동으로 가라!”	202
3) 구청 체제로의 환원을 촉구하다!	205
05 코로나19 상황과 이후의 노인 대책	208
06 동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선출	211
1) 성명서	211
2) 시민의 대표와 시정잡배의 차이는?	215
07 지방 자치제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공천제 폐지	219
08 조례 제정 활동	223
1) 부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223
2) 부천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조례	229
3)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	233
4)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38
09 앞으로의 활동 방향-남겨진 숙제	242
◆ 부 록-2020년, 2021년 교섭 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힘 대표 의원 이학환	251

## 처방보다 좋은 약

“기뻐하는 마음은 좋은 약”이라는  
성서의 말씀도 있듯이  
의사의 처방이 분명 중요하지만  
가족의 정성은 더 중요한 것 같다  
환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꺼져 가는 불꽃은 새 힘을 얻고  
살고 싶은 의욕은 강해질 것이다  
어느 의사가 한 말, 자신은  
“사랑과 웃음”을 처방한다고

3~4년 전부터 어머니가 달라지셨다  
목구멍으로 밥알을 넘기지 못하시는 게  
밥알도 버거울 정도가 되셨다  
어머니용 재료를 따로 사용하여  
3~4일 분의 음식을 만들어 둔다  
어머니는 찰밥만 잡수시기에  
(찰밥은 소화가 잘 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둘째형님이  
어머니용 찹쌀을 보내 주신다  
거기에 소고기 반 근하고  
전복 5마리 더하기  
당근 한 뿌리, 다른 야채  
재료들을 섞어서 매끄럽게 갈면  
입에서 씹히는 것이 없어진다  
압력 밥솥에 부어 밥을 하고  
절구통에 쏟아 찧으면  
인절미처럼 졸깃졸깃해진다  
밥공기에 담아 보온밥통에 넣었다가  
곰탕하고 드시게 꺼내 드린다

## 제10곡

### 감나무 아래에서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안다  
모든 기쁨에서  
동떨어져  
저 창공을 바라본다  
아, 나를 사랑하고 아는 이  
먼 곳에 있구나!  
어지럽고, 속은 타들어가는 듯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안다”

– 괴테/‘빌헬름 마이스터의 도제시대’ 중에서

차를 타고 시골에 가면  
밭 귀퉁이에 작은 감나무가 있었다  
두 분이 감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아들이 오면 오는 거를 보시고  
아들이 가면 가는 거를 보셨다  
시야에서 아주 사라질 때까지  
온다고 할 때는 보고 싶은 마음  
간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  
‘또 언제 보나?’ 하는 서운한 마음  
얼마나 그리우면 그러실까!  
몸을 가둬 놓고 오는 것도 아닌데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마음  
(어머니를 떨어지기 싫어했던  
그날 어릴 적 우리의 마음)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기에  
모시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나도 가슴이 아팠다  
그때는 아직  
누구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모든 기쁨에서 동떨어져  
창공을 바라보는’ 두 분의 마음을  
그 마음이 냈을 법한  
나지막한 탄식 소리가

감나무 아래에서 들리는 듯하다  
“아, 나를 사랑하고 아는 이  
먼 곳에 있구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 아버지의 지게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 트기 전 지게를 등에 지고  
산골짜기 먼 논밭으로 향하셨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두엄 한 짐을 지게에 지고  
새벽같이 밭으로 향하셨다  
겨우 7살에 혼자가 되셨고  
16살에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여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장만한 논밭  
멀리 산속에 있는 논밭은  
지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무거운 지게는 달팽이의 껌질처럼  
평생 아버지의 등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나무를 한 짐 지고는  
25리가 넘는 시장에 내다 팔아  
우리 5남매를 키우신 아버지  
방에 누워 있으면 몸이 아프다고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시던 아버지  
아버지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  
“가정을 지키고 너희를 키우느라  
지게가 수십 개 망가졌다”  
편안한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못 드시고  
떠나신 아버지가 그리워진다  
아버지한테 못한 것이 많아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려 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으로 성장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오늘도



## 제13곡

### 어머니의 마지막 거처

시골에서 전화가 왔던 1998년 10월  
버스 타고 장에 가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웃의 전화였다  
풍으로 인한 반신마비로  
경희의료원에 대여섯 달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는 우리 집에 1년 계셨다  
초기였지만 치매도 있었다  
IMF 괴물이 나라를 짓밟고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라  
부모님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았다  
다행히 큰형님이 모시겠다는  
미안하지만 반가운 말씀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형 집에 계셨던 기간은 1년  
형님 내외가 고생 많이 했지만  
아버지 삶의 마지막 시간을  
장남과 함께했던 1년이었다  
길고 긴 결혼생활 끝자락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둘째형님 집에 3년 계시다가  
부여로 내려가셨다  
정년퇴직하신 큰형님이  
고향에 집을 지으셨던 것이다  
멀쩡한 내 집이 있어도  
혼자 살지 못하는 어머니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처럼  
돌봐 줄 자식들을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거처가  
부천에 있는 나의 작은 집이다  
큰형하고 한 4년 계시다가  
소사 성모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  
모시고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모시게 되었다

“너 클 때는 이렇게 못해 줬는데  
내가 복을 넘치게 받고 있다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고맙단다



성경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

## 원종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

### 1) 시장 활성화 사업

과거에 재래시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개선하려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한창인 때였다.

원종종합시장도 정부에서 예산으로 7억 원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이 예산은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당시 상인회 회장이 활성화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회장직을 내놓아 공석이 된 상태였다. 상인회 회장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으나,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시던 70세쯤의 상인회 임원이 계셨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는 내가 회장이 되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권하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끈질기신지, 내가 사양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셨다.

재래시장의 열악함이나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나 역시 그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으므로 계속 거절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그것이 가진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업자와의 수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수의 계약을 하면 업자와 상인회 간에 결탁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상인회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안방 뉴스를 타기도 했으니 사업 자체에 꽂히는 사람들의 불신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야채 가게 주인에게서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나는 시청에서 (수의 계약이 아닌) 전자 입찰에 붙이겠다는 나의 조건을 받아 주면 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설명했더니, 담당 과장은 “다른 시장은 다 수의 계약으로 하겠다고들 하는데, 그 시장은 왜 그러냐?”고 되물었다. 나는 수의 계약은 상인들 간의 단합을 저해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찰을 붙인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당시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던 시장이 우리 시장을 포함하여 인근에 3군데 있었다. 그중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전자 입찰 방식을 채택한 셈인데, 이 방식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데 한 몫을 했다.

마침내 국비 6억 4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600만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

여 2010년 11월 4일 원종종합시장 입구에서 현대화 사업의 전개를 알리는 기공식을 가졌다. 다음해 3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원종종합시장은 총 점포 수 55개로 아케이드, 전기, 소방 시설, 통행로 확장 보수 등 모든 시설이 현대화될 것이었다.

한나라당 안병도 오정당협 위원장님은 축사에서 “원종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시장의 발전을 위해 계속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기념사에서 협조해 주신 원종시장 상가 업주 대표님들께 감

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제 최신 시설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만큼 고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대화된 현재의 모습

## 2) 시장 경영을 현대화하다

### (1) 상인 대학 유치

원종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나서, 시장을 경영하는 부분도 현대화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시장 경영의 현대화는 곧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상인 대학을 유치하고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약 2개월 동안 시장 상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련을 하였다.

내게도 배움에 대한 개인적인 한이 있었지만, 시장 상인들 모두가 장사만 하고 물건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배워서 고객들한테 좋은 것을 베풀 줄도 아는 현대화된 의식을 갖춘 상인들이 되기를 바랐다. 또 그러한 것이 시장의 매출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까지 영향을 주기를 바랐다.

### (2) 대학과 연계하다

상인 대학 교육을 받고 나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부천대학>하고 연계하여 부천대학 학생들이 원종시장에 나와 프로그램을 짜서 pop(예쁜 손 글씨)도 가르쳐 주고, 상인들 의식 교육도 하고, 고객 관리, 손님 응대 방법,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해 주었다. 학생들이 사무실을 얻고 교수도 나왔는데, 꽤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다.

교육의 결과는 확실히 달랐다. 옛 재래시장이 완전히 탈바꿈했다



부천 원종종합시장(회장 이학환)은 최근 성곡동 주민 센터에서 '2012년도 전통시장 상인 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담당 교수의 진행으로 개최된 이날 졸업식은 부천시 의회 의장 등의 축사에 이어 부천시 명예 학장 졸업장 수여, 모범 수료자 표창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4일 개강한 상인 대학의 교육은 2개월여 간 친절 서비스 등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장기 교육 과정으로 이뤄졌다. 또 상인 의식 개혁, 친절 서비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위주로 한 기초 과정과 고객 친절 응대 법, 상품 진열방법 등 상인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단계별 교육으로 실시됐다. [경인일보 2012.08.09.]

는 말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먼저 상인들의 의식부터 바뀌었다. 옛날에는 무뚝뚝한 태도로 손님들이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하는 식이었다면,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제품 관리도 철저히 했다. 지저분하던 가게들이 깨끗해지니까, 시장 전체가 밝고 깨끗해졌다. 예전에는 상인들 간에도 '나는 나, 너는 너' 하는 식이었는데, 상인들 간에 단합이 이루어져 시장 발전 기금도 조성되었다. 그전까지는 손님들하고 돈과 물건만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이제

는 상인들도 손님들이나 다른 상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면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체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지만 원종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쳐 잘 꾸려 나가고 있다.

### 재래시장–대학 연계 마케팅

경기도 부천시는 오정구 원종동 원종 재래시장이 대학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하는 경기도의 ‘1시장–1대학 특화 육성 사업’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종시장은 부천대학으로부터 마케팅 기법과 홍보, 서비스 향상 방안을 전수받게 된다.

시는 상인들에게 앞치마, 장바구니, 명찰을 제작 보급하고, 화장실 개보수, 시장 통로 정비 등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 시 공무원들의 정기 공연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예술단 공연 등으로 시장 분위기도 바꾸게 된다. [연합뉴스 2012.04.16.]



‘제9회 2012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에서 부천시의 원종종합시장(회장 이학환)이 전국 우수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경기일보 2012.10.24.]

## 고강동 비애(悲哀)

“조선 시대에 부평부의 하오정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고리울 · 장장굴 · 강상굴을 합해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로 되었다. 고강리란 지명은 ‘고리울’과 ‘강상굴’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1973년에 김포군 오정면 고강리로 되었다가 1975년에 다시 부천시에 편입되었다.”

‘고강동’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지명 유래집(중부편)의 설명이다. ‘고리울’에서 ‘울’은 마을을 뜻하므로, ‘고리(ring)’란 말은 높은 야산과 범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의 형태에서 유래한 것 같다.

### 1) 경인고속도로가 갈라놓은 동네

#### (1) 마을 현황

애초에 서울시에서 주변으로 인구가 분산되면서 개발된 동네이

지만, 오정구 고강동과 고강본동은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고강동은 문화 혜택을 받는 면에서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어 부천시의 변방 취급을 톡톡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고강본동에 속한 은행단지의 형편은 더욱 심각하다. 은행단지에는 병원도 의원도 은행도 목욕탕도 없고 도로에 인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은행나무들을 따라 마을이 만들어져 ‘은행단지’로 불리게 되었다는, 어찌 보면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는 이름의 유래와는 달리, 은행단지는 1968년에 국가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가 날 때 동네가 둘로 나뉘지면서 불행한 역사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 인도(人道) 없는 동네

최근 SNS에는 소동(小洞)의 비애를 여실히 드러내는 글이 게재되어 선거를 앞두고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마 아무개는 20년째 고강동에 거주하지만, 20년 전과 현재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번에도 고강본동은 공약 제외 대상이네요.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특히 어린 이들에게 더 위험한 동네라는 게 안타깝다”며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 등 도대체 신경을 쓰는 공직자가 없다”는 말로

동네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소외감을 드러냈다.

고강본동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는 “작은 동네의 소외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치인도 같은 지역구 내에서 유권자가 많은 동네를 거주지로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유권자를 쫓아 움직이는 게 정치가 아니냐?”라고 서운함을 표현했다. 이어서 그는 “고강동은 항공기 소음으로 짧게는 5분 간격으로 피해를 보는 데 더해, ‘인도(人道) 없는 동네’라는 치욕적인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동네”라며 “최근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도시 계획을 다시 짜서 신축 허가를 내야 하는데, 인도와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새로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아무개는 “항공기 소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인도를 확보하는 문제는 시장이나 시의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고, 행정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수가 적으니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 이제껏 고강동은 공항 공사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복지 공간을 마련했지,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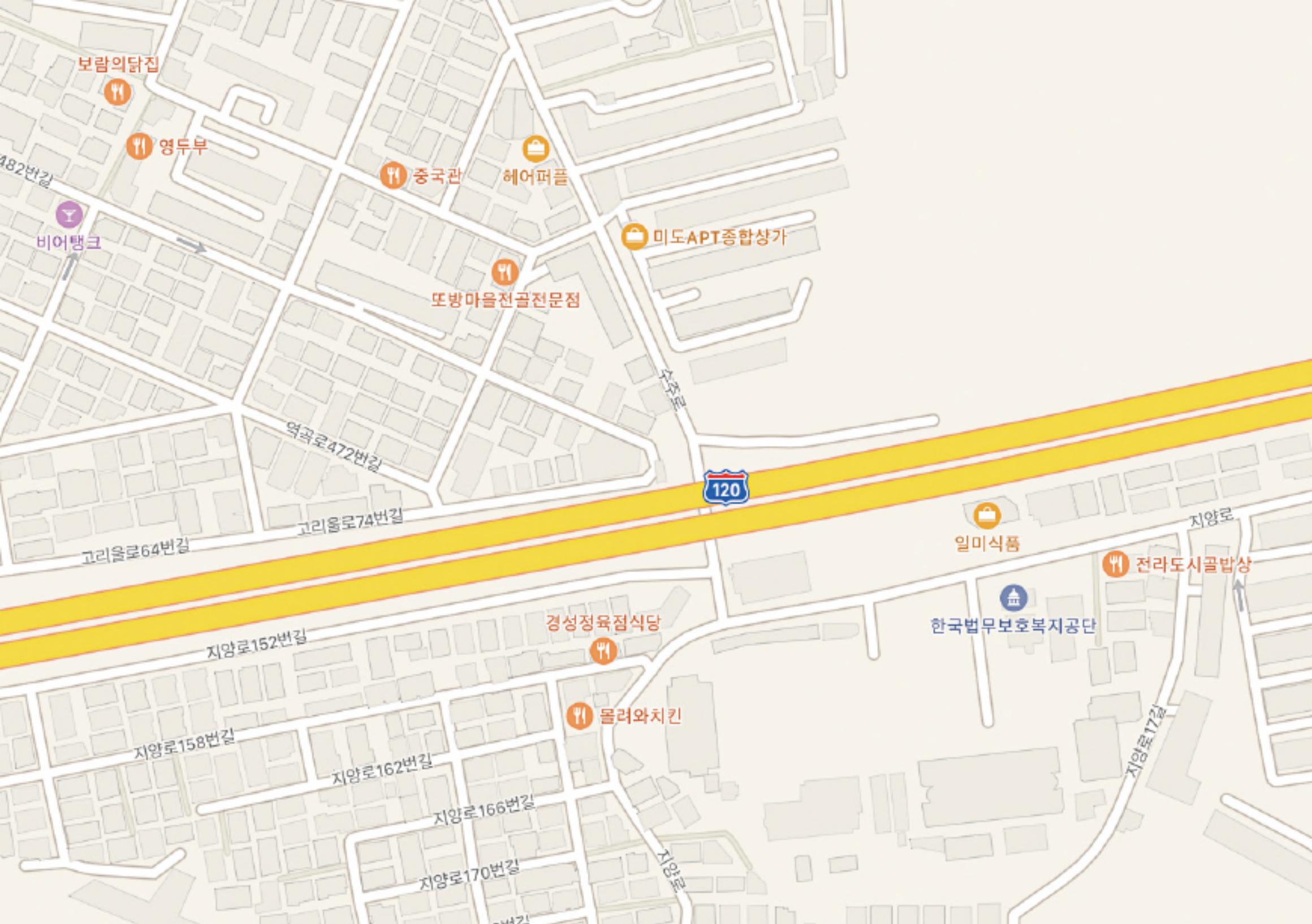
또 다른 주민 장 아무개는 “동네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다. 시의원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달하기가 쉽고 시정을 요구하기가 편하다”라며 “고강본동과 고강 1동을 통틀어 5만여 명의 적은 인구가 살다 보니 이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 극히 적었다.

기성 정당 의원들의 경우, 동네행사에서 좀처럼 볼 수도 없는 귀한(?) 인물이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똑같은 공약을 들고 주민들을 찾아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9명 중 모 예비 후보는 고강동에서도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은행지구의 존재조차 몰라 지역 주민으로서 너무 놀라고 서러웠다”고 덧붙였다.

고강동 주민들 가운데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동네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고강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도전 성과가 없었던 것이 20여 년간 변함없이 ‘인도 없는 동네, 고강동’으로 굳혀진 이유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천매일 2018.5.16.]

또한 은행단지 중에서도 고속도로로 인해 떨어져 나간 쪽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고속도로가 막고 있어도 행정 구역은 부천시에 속해 있으므로 행정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 위지도에서 ‘120’이라고 적힌 위치에 고속도로를 넘어가서 양쪽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고강보도육교)가 있다. 그 다리를 넘어서 고강본동 주민 센터로 갈 수 있다.

광역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속도로 너머로 떨어져 나간 지역 주



경인고속도로를 내면서 나눠진 은행단지 마을

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다.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고강본동이 아니라 대표 동인 성곡동 주민 센터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환승해야 하는데, 편도로 2시간이 걸린다.

그곳 주민들의 수나 의견이 적은 편이다. 또 부천에서 멀리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나 편의 사항에 대해 시에서 전달받거나 개선해 주는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이나 표의 수에 좌우되는 정치인들이 이런 외딴 지역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

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역의 위치상 서울로의 이동이 많은 주민들로서는 그 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부천이면서 부천 아닌 곳, 서울 속의 부천, 월경지(越境地), 서자(庶子), 버려진 자식 같은 곳! “차라리 서울로 행정 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 (2) 대책

우리나라 1960~1970년대 개발 시대에는 우선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배고프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다.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마저 희생하면서 국가 정책에 협력했던 서민들,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미싱을 돌리고,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흙짐을 지고 날랐던 그들의 과거에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경인고속도로가 일방적으로 부천의 한 마을을 갈라놓은 지 어언 5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건만, 잘려진 부분의 선홍색 상처는 여태껏 아물지 않고 있다.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 새까맣게 잊었겠지만, 지금도 나이 드신 주민들은 그때 느낀 아픔을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간다. (고강본동은 고령자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마을이고, 고강 1동은 20%가 넘는 초고령 마을이다. 어르신들이 다른 어느 지

역보다 많은 곳이다) 다리를 다친 사람이 그 결과를 날마다 경험하듯이, 두 동강이 난 마을에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날마다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이제는 서로 이어 줘야 한다. 부천 시장도 이 일에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9년 본회의에서 갈라진 은행단지를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일정 구간을 선택한 다음, 그 구간의 도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위를 덮는 방법이다. 복개한 부분에는 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 양 쪽 주민들이 서로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떨어져 나간 쪽 마을이 산 중턱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포물선 모양을 피하고 평평하게 복개할 수 있다.

다음은 이 방법을 제안했던 본회의 회의록을 인용한 것이다.

『혹시 부천시에 외딴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강동에는 부천시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섬이 있습니다. 그곳을 부천시로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부천 시민임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1,800세대 중 200여 세대가 빙집으로 남아 있는 곳, 아무도 들어와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 바로 고강동 은행단지입니다.

고강동 은행단지는 당초 고강동에 붙어 있었으나 1968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강동 지역과 단절되어 부천의 외딴섬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약 2,800여 명의 주민들이 변방에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시장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은행단지에 지난 3월 시장님께서는 실·국·단장을 총동원하여 은행단지에서 ‘찾아가는 기획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업 성과를 떠나 은행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시장님의 의지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5월 14일에는 고강동에서 항공기 소음 체험데이에도 참여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체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강동은 인구 밀도는 높은데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에 미세 먼지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까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강동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벌판의 철새나 개구리는 보호받고 있는데, 똑같이 세금 내는 고강동 주민들은 왜 철저히 무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고강동 주민들은 대장동 개구리만 한 대접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인내하는 것도 이제 한 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YMCA 등 23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대장 들녘 지키기 시민 행동>이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토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동 개발이 부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전문가와 부천 시민 단체가 진행한 ‘대장 들녘 생태 조사’를 보면, 대장 들녘에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쇠기러기,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큰기러기와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부천에 거주한 최 모 씨는 “대장 들녘에서 모내기도 체험하고 고라니와 금개구리를 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다”며 “대장 들녘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섭고 천연기념물인 동물들이 사라질까 봐 불안하다”고 말 했다. [한겨레 2019.07.10.]

지난 3월 시장님이 지시하신 ‘찾아가는 기획 회의’의 캐치프레이즈가 “은행단지, 외딴섬이 아닌 부천의 마음이 됩니다”였습니다. 그 약속이 일회성 이벤트 구호가 아니라,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강동 및 은행단지 주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1차로 고강동 고강아파트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과 은행단지 주민들을 대장동 개발 지역으로 전원 이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주시켜 줄 의지가 있는지 주민 앞에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 고강동과 은행단지 주민들의 대장동 개발 지역으로의 이전은 도시 재생 관련 법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건축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TF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 개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ICAO 국제 기준 완화 개정을 위한 제15차 TF 회의를 통해 논의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 관련

사항을 강서구와 현안 사항 안건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236회 부천시 의회(제1차 정례회) 2019.6.25.]

둘째, ‘찾아가는 기획 회의’ 후에 집행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고강동 및 은행단지의 현안 사항 해소 대책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 올해 3월 21일에 은행단지 내 ‘찾아가는 기획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분야별 19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6개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일방통행로로 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추진 불가로 검토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올해 12월에 추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상동]

셋째, 은행단지가 안고 있는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외판섬’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단지는 폭 12m짜리 <고강보도육교> 하나에 의지해서 경인고속도로를 건너 고강동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판섬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외판섬 구조를 해결하고 부천시와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일부 복개하여 고강동 지역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상부를 100m 가량 복개하여 고강동 지역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복개한 부분을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하여 은행단지의 외딴섬 구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고강동 은행단지를 가려면 역곡로에서 협소하고 복잡한 고강동을 통과하여 고강보도육교를 건너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복잡한 고강동 지역의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단지 주민들이 겪는 통행 불편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강동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역곡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은행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은행단지하고 고강동의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100m 가량 복개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어 마을의 일체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역곡로에서 은행단지 쪽으로 길게 약 430m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자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고강동으로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은행단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백운역입니다. 백운역이 3만 5000볼트가 지나가는 전철 위에다가 고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1호선 오류역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강동과 은행단지가 한 마을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할 수 있지요. 제236회 부천시 의회(제1차 정례회) 2019.

6.3.】

### 머나 먼 인식의 차이

[지난 5월 4일 고강동 은행단지에는 웃지 못 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딴섬 은행단지는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3일 동안 마을버스가 은행단지 종점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마을버스 회차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주가 쇠사슬로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지는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시의 소유 부지나 다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 등에서는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시민들만 골탕 먹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학환 의원:** 다음은 은행단지 마을버스 중단에 대해 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은행단지 마을버스가 3일 동안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네, 당시에 받았고, 3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상으로 47, 뭐 하루를 끼고 나면 3일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학환 의원:**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시장:** 사유지 문제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공로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으면 사유지로 통행을 막을 수 없고, 또 저희가 매수하기로 되어 있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시를 했는데, 왜 3일 동안 마을버스가 못 들어 갔을까요? 바로 보고받은 건 아니죠?

**시장:**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고받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학환 의원:** 은행단지는 부천시에서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도 부끄럽습니다만 ‘외딴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거기가 쪽다리 하나로 건너다니고 있죠?

**시장:** 네.

**이학환 의원:** 만약에 그 쪽다리가 무너졌다면, 은행단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이상한 상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무너지면 고속도로도…

**이학환 의원:** 아니, 만에 하나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안전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통행을 못한다면?

제가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무수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상 도로 하나 없습니다. 마을버스 하나가 멎으니까 온 동네가 멎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84만 대표로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제가 서운한데요, 주민들한테 한 번 가서 그 옆에 통행로도, 고속도로 옆쪽에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시장이 찾아가고 간부들도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도 전하면서 몇 가지 조치도 취했고, 조금 있으면 공원도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곳은 다른 곳처럼 재생하거나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과감한 조치들이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계속 감정적인 말씀만 하시면 전혀 시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는 그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의원님보다 제가 더 할 거예요.

**이학환 의원:** 시장께서는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시장:** 다리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학환 의원:** 만에 하나 정말 잘못되어 그 다리로 통행하지 못할 때는 어쩔 거냐는 말입니다. 비상 도로도 하나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뭐가 감정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동이라는 미명 아래 성곡동사무소까지 마을버스가 한 번에 가지고 않습니다. 고강동 가서 갈아타야 하는 그런 마을버스를 3일 동안이나 발을 묶어 놨다? 거기 가서 주

민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도 못 가고, 거기서 유치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병원 가기도 힘들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3일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한번 가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내가 시장한테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시장:** 과장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청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은행단지 문제도 그렇고.

**이학환 의원:** 시청 이전 문제도, 외청이 20개 나가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시장:** 외청은 곧 대부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이학환 의원:** 외청 다 들어옵니까?

**시장:**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이학환 의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들어옵니까?

**시장:** 다는 아니죠.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의원이 어떤 민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시장이 ‘의원이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그것 시장 자격 있습니까?

**시장:** 그게 시장 자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학환 의원:** 그게 자격이 있는 얘기입니까? 의원이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의원 때문에 아파트 이전을 못해 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 제가 의원님 때문에 아파트 이전을 못해 준다는 얘기한 적 없고요.

**이학환 의원:** 영상문화단지 일을 내가 반대해서 못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반대하는 부분, 늦어지면서 기회를 놓쳤…….

**이학환 의원:** 거두절미하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단지 울분을 내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똑같은 민원을 다른 의원님도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학환 의원님만 발언대에 서셔서 지금 이렇게 감정을 격昂시키는 방식으로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학환 의원:** 마을버스가 3일 동안 멎지 않고 통행이 됐다면 아무 일 없습니다. 은행단지 주민들한테 마을버스 중단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시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죠, 당연히.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행정 절차라는 게 물리력으로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설득해서 처리는 됐지만 더 빨리 해결했으면 좋았을 걸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학환 의원:** 그분들한테 진작에 가셔서 내가 수장으로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미숙했다고 말씀드렸어야 됩니다. 우리 부천 시민의 대표 아니십니까?

주민의 대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정으로 얘기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부천시가 잘

되겠습니까?

은행단지에 가 보니, 그 연세 드신 분들 3일 동안 밭을 뚫어 놓아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데, 마을버스 하나가 끊어져서 민원을 보러 가기도, 병원을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의원이 감정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시민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부천시 의회 (제1차 정례회) 2021.6.23.]



은행단지에서 부천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은 마을버스(58, 58-1: 은행단지-까치울 역)뿐이다. 은행단지에는 은행이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단지에 은행이 없다?) 부천으로 나갈 일이 많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타고 고강사거리로 나가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그나마 겨울에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마을버스가 들어오지 못해 고강사거리까지 걸어 내려가서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그런 날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진은 은행단지 옆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이다.



내가 새로 개설하자고 하는 은행단지 진입로가 나무 옆으로 보인다. 위치는 마을버스 종점에 있다. 이 길은 신작동사거리로 연결되며, 거기서는 서울, 인천, 역곡역으로 통한다. 이 도로가 뚫리면 고강사거리의 교통도 원활해지고, 차량 운행 시간도 단축되며,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실행하기로 결정되었고 착공 시기만 남아 있다.